

## 유치진의 로맨티시즘에 관한 고찰

심우일\*

## 〈차례〉

1. 서론
2. 1930년대 후반기 신창작방법론의 모색
3. 유치진의 낭만주의론
4. 현실인식의 정신원리로서 낭만주의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치진의 낭만주의를 연극 환경의 변화로 인한 대극장연극론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서,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급박해진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담론들을 통해 조선 문단의 불안 그리고 부정적 사실세계에 대한 작가의 대응 방법으로써 낭만주의가 지닌 의미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임화에게 낭만주의는 작가의 렌즈로 작용하는 주관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신 원리이다. 반면 유치진은 리얼리즘에 머물러 있는 한 암울한 현실의 비판적 세계를 그려낼 뿐이라고 인식했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창작방법의 논리가 낭만주의이다. 그 결과 유치진의 낭만주의는 임화가 낭만주의에 관해 발화할 때 지니고 있던 1935년 당시의 발화적 맥락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제어: 유치진, 낭만주의, 중일전쟁, 관찰적 리얼리즘, 기정사실

## 1. 서론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1935년 이후 유치진의 ‘낭만주의’와 관련한 주

장은 1936년 건립된 부민관과 같은 ‘대극장 공연’에 맞는 상연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sup>1)</sup> 유치진이 주장하는 ‘낭만주의’라는 것은 ‘대극장 공연’에 맞는 무대의 연기술과 관련된 실용적 목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sup>2)</sup> 이것은 유치진이 ‘대극장 공연’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요소를 ‘낭만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다.<sup>3)</sup> 또한 유치진은 사실주의극을 창작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은 ‘사실주의’ 토대 위에 ‘낭만성’을 덧입힌 역사극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sup>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1930년대 유치진의 연극 비평 중심에 흐르는 일정한 논리적 흐름을 인과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이정숙은 선행연구들이 유치진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을 외부조건에 고착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작가의식’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유치진이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지속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로 현실의 ‘관찰’에 머물러 있는 작가의식 때 문임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1937년 12월 15일 『동아일보』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좌담회를 연 글이 실렸다. 좌담에서 정인섭은 유치진에게 그의 ‘낭만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유치진은 자신의 ‘낭만주의’는 임화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고 대답하였다. 좌담이 있던 후에 임화는 「柳致眞論」을 발표하였다. 이 글을 살펴보면, 유치진의 리얼리즘은 식은 관찰의 소산이라며 그와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치진과 임화는 ‘낭만주의’ 혹은 ‘낭만정신’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발화의 외부

- 1) 양승국, 「1930년대 유치진의 연극비평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집, 한국극예술학회, 1993, 64~65면.
- 2) 박영정, 『유치진 연극론의 사적 전개』, 태학사, 1997, 161면.
- 3) 이상우, 『유치진 연구』, 태학사, 1997, 110면.
- 4) 문경연, 「1930년대 한일 역사극의 담론 지형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49~50면.
- 5) 이정숙, 「〈소〉와 <당나귀>에 나타난 유치진 희곡의 변모와 의미」, 『어문학』 제102집, 한국어문학회, 2008, 572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층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좌담에서 유치진은, 자신의 낭만주의를 입화적 의미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본고는 유치진이 주장한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의 맥락을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1930년대 후반기 신창작방법론의 모색

1935년 5월 21일 김남천과 임화가 경기도 경찰부에 카프 해산계를 제출함으로써 카프는 해산되었다. 카프의 해산은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통한 진보적인 혁명의 실천 가능성을 의심하도록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카프가 해체된 이후로 더 이상 공통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활동은 제약되었고, 리얼리즘은 현실의 부정성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창작방법론이었다. 더구나 식민지인으로서 식민지 현실의 부정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1936년 6월 1일 『삼천리』에 실린 「조선문단에 파시즘 문학이 서지겠는가」라는 설문이 있었고 문인들은 파시즘 문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파시즘’ 문학의 유무에 대한 물음 자체가 1935년 7월 카프 해체 이후 당시 억압적인 사회의 정황이나 문단의 분위기를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또한 1936년 12월 1일 『삼천리』에 「「藝術」이나 死」나, 文士心境 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문인들의 열악한 글쓰기 환경에 대한 토로와 그들의 일상에 침범한 암울한 현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민병휘의 당시 심경을 아래 인용하고자 한다.

명일의 식대가 없다. 그것도 잘 알고 있다. 「티룸」의 한편 의자에 앉어 그는 외로히 누구를 기다리고? 홍차의 香薰을 맡으면서 원고서줄 동무를 기다리는 잡지편집兼문인! 稿料(변변치도 못한)를 어드러 터벅이며 잡

지사나 신문사의 문을 두드리는 예술가! 이곳의 한 개의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라?

그들의 얼굴은 「메랑코리」하다! 그들은 묘지를 찾는 미망인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종로네거리를 그래도 예술을 위해서 무엇인지 머릿속에 담어가지고 정신없이 갔다가 「꼬, 스톱」의 경중에 비로소! 자리를 찾는 때만타!⑥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 1936년 작가들의 일상에는 궁핍함과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35년 이후 작가들에게 정신의 문제보다는 생활의 문제가 압력으로 절실하게 다가왔으며, 고료를 얻고자 종로네거리를 방황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무거운 조선문단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병휘가 작가들의 얼굴을 멜랑콜리하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외부 정세의 전환으로 인해 궁핍과 불안에 시달리는 작가들의 우울한 표정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보면, 카프의 해체 이후 갑작스럽게 ‘낭만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카프의 해체로 상징되듯 더 이상 193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작가의 정치관을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작가들이 목도하는 것은 궁핍한 현실과 생활의 억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프 해체 이후의 기사나 평론들을 살펴보면, 낭만주의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935년 8월 24일에는 『동아일보』에 김두용의 創作方法의 問題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이라는 글이 실렸으며, 1935년 9월 27일 『동아일보』에 한효의 創作方法의 論議 文學賞의 리얼리즘 과 「로맨티시즘」의 文學」 그리고 1936년 1월 1일 『동아일보』에는 임화의 「當來할 朝鮮文學을 위한 新提唱, 偉大한 浪漫의精神 이으로써 自己를 實徹하라 가 발표되었다. 1936년 3월 28일 『조선일보』에 백철은 낭

⑥ 설문 「「藝術」이나 「死」나, 文士心境, 『三千里』 제8권 제12호, 三千里社, 1936.12.01, 194~195면.

만인가, 사실인가? 금월 창작의 음미」라는 글을 발표했으며, 다음해인 1937년 6월 10일 『동아일보』에 「『리얼리즘』 以後에는 浪漫主義가 擡頭 作家評家の 不和는 作家의 責任」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1936년 4월 25일 『조선일보』에 최재서는 「浪漫主義 復活인가」라는 글을 실었다.

위에 열거된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의 발표된 평론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미 조선문단에는 새로운 창작방법론으로서 ‘낭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고 동시에 ‘낭만주의’라는 것은 ‘리얼리즘’ 이후에 대두되는 창작방법론에 속한다며, 앞서의 견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낭만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창작방법론의 모색이 당시 조선문단의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대외적으로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급격한 정세의 변화가 있던 와중에 1937년 12월 15일 『동아일보』에 「明日의 朝鮮文學」이라는 좌담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 좌담은 37년 이후 조선문학의 진로 모색을 위한 문단 중진들의 논의였다.

좌담은 주로 임화와 김남천 그리고 최재서 등이 주도해 이끌어갔다. 카프가 해체된 이후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의 유지와 포기라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좌담이었다. 이 좌담회가 흥미로운 것은 리얼리즘에 대한 회의나 새로운 조선에 맞는 방법론을 모색하자는 시각들이 문인들 사이에서 꽤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35년 카프가 해체된 지 약 이 년 후에 조선문단의 중진들이 모여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에 대한 회의를 토로하고, 조선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자는 슬로건에 많은 문인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문단의 전체적 분위기를 표현해주고 있다.

좌담에는 극작가 유치진 또한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문면 상으로 알 수 있듯 작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조선의 작금에 맞는

새로운 창작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유치진의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의 한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37년에 있었던 좌담이 의미있어 보인다. 좌담 도중 정인섭이 유치진에게 “당신이 고조하는 낭만주의란 신낭만주의를 말하는 걸까?”라고 묻자 유치진은, 자신이 주장하는 낭만주의란 임화가 말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柳致眞** 作家가 리얼리즘만 追窮하고 보면 너무 어두워져서 悲觀으로 흐르기 쉽고 나중에는 自縊自縛이 돼서 身邊 소설화하기가 쉽게 되더군요. 리얼리즘에 입각한 자신 자신의 에스프리를 강조, 거기서 수년 세계를 받은 후에 浪漫的으로도 修練을 해서 自己를 계발하는 것이 明日의 文學의 -

**鄭寅燮** 당신이 高調하는 浪漫主義란 新浪漫主義를 말하는 걸까?

**柳致眞** 내가 말하는 浪漫主義란 林和 氏가 말하는 리얼리즘에 立脚한 시벨건 心臟이란 意味의 것입니다.7)

이미 유치진은 좌담 전인 1937년 6월 10일 『동아일보』에 「浪漫性 無視한 作品은 기름없는 機械」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1937년 6월 11일 「新劇運動의 한 課題」에서 로맨티시즘의 대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인섭의 태도와 질문으로 볼 때에 당시 유치진이 주장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개념은 문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게 느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1937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좌담회의 주제가 ‘리얼리즘을 벗어난 조선에 맞는 새로운 창작의 모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유치진은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새로운 창작방법론을 주장한 셈이 된다.

7) 좌담 「明日의 朝鮮文學將來할 思潮와 傾向 文壇重鎮十四氏에게 再檢討된 리얼리즘, 휴머니즘, 『東亞日報』, 1938.1.1.

정인섭이 유치진에게 “당신이 고조하는 낭만주의란 신낭만주의를 말하는 겉까?”라고 물음으로써, 유치진은 자신이 새로운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낭만주의’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거나 혹은 대극장 공연에 맞는 연기방법론에 불과했다라도 공적 토론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낭만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좌담에서 유치진은 자신이 말하는 ‘낭만주의’가 임화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임화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임화는 1938년 3월 1일 『동아일보』에 「劇作家 柳致眞論-現實의 貧困과 作家의 非劇」이라는 평론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훗날 1940년 학예사에 출간된 임화의 평론집 『文學의 論理』에 「柳致眞論」이라는 제목으로 실린다. 선행연구들이 잘 밝히고 있듯이 「柳致眞論」은 유치진의 리얼리즘에 대한 임화의 비판적 견해가 잘 담겨 있는 글이다.<sup>8)</sup> 임화는 “실상 여태까지 致眞이 쓴 大部分의 寫實的 作品은 擧皆가 現實과의 葛藤의 所産이라 기보다는, 식은 觀察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單純한 觀察者에겐 現實은 自己의 深奧한 秘密을 開示하지 않는다.”<sup>9)</sup>라며, 유치진의 리얼리즘은 관찰의 소산이어서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임화는 「柳致眞論」을 통해 자신의 리얼리즘론과 유치진이 말하는 ‘낭만주의에 입각한 리얼리즘’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유치진이 말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주장은 어떠한 맥락에서 발화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김용수, 「유치진의 사실주의극에 대한 재검토-액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9호, 한국연극학회, 1997, 118면.  
김재석, 「유치진의 초기 희곡과 연극론의 거리」, 『어문학』 제58호, 한국어문학회, 1996, 208면.  
박영정, 앞의 책, 162면.  
유민영, 「저항과 순응의 궤적-유치진 전반기 희곡」, 『한국현대희곡사』, 새미, 1997, 333면.

9) 임화, 『文學의 論理』, 학예사, 1940, 550면.

### 3. 유치진의 낭만주의론

1935년 유치진은 미국의 현역작가 맥스웰 앤더슨의 「목격자」라는 희곡에 관한 해설을 하는 가운데, 앤더슨은 이전의 낭만주의 작가와 다르게 현대의 생활을 비판적으로, 또는 항의적으로 해부하려 들었다고 평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적, 해부적이고 항의적인 태도는 입센에서 버나드 쇼를 거쳐온 현대 극작가가 가지는 리얼리즘 정신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낭만’이란 술어는 센터멘탈리티와 동의어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이념이라고 말한다.

나도 최근에 와서 우리 문학-특히 극문학-이 너무나 산문화하고 신변화하여 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데 대하여 어떠한 의혹을 느낀 바 있어 작품과 생활에 대한 낭만의 기백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 ‘낭만’이란 술어의 근본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바 구름을 타고 가는 천사의 행적이 아니요, 일부적으로 곡해되어 있는 센터멘탈리티의 동의어가 아니다. 생활에 육박하는 생활의 이념이요, 희원(希願)이요, 의욕이요, 그 에스프리다.<sup>10)</sup>

유치진은 앤더슨의 작품을 평하면서, ‘낭만’이란 술어는 센터멘탈리티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이념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무렵부터 유치진이 낭만성과 생활의 문제로 표현되는 리얼리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1936년 春香傳脚色에 對하여 라는 글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1936년 유치진은 농촌극에 대한 테마의 결핍을 문제 삼아 그해 7월에 <春香傳>을 각색하였다. 테마의 한계와 더불어 리얼리즘의 한계를 느끼던 유치진은

10) 유치진, 「목격자 상연에 대하여-미국의 현역작가 맥스웰 앤더슨」, 『동광 유치진전집』 8권, 서울에대출판부, 1993, 330면.

<春香傳>이 낭만과 문학에 속하는 작품이라며, 자신의 리얼리즘으로 로맨티시즘을 개척해보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유치진은 농촌극 테마의 결핍 그리고 리얼리즘 연극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에 대한 모색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리얼리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리얼리즘이 가지는 그 解剖力과 그 觀察力! 이것을 土臺로 한 새로운 發展과 轉換을 나는 찾고자 했습니다.

偶然히 「春香傳」은 浪漫派文學에 屬하는 作品입니다. 나는 나의 리얼리즘으로써 이로만티시즘을 開拓해 보려했습니다. 「解剖」와 「觀察」을 土臺로하여 다시 한번 더 春香傳을 보자. 리얼리즘을 土臺로 한로만티시즘-이런것이 存在될수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sup>11)</sup>

그렇지만 위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아직 유치진은 자신이 구상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슬로건을 구체화시킬 방법론과 이론적 배경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 좌담에서 자신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임화의 偉大한 浪漫精神이라는 글에서 찾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38년 「극단진흥책이라는 글에서 유치진은 구체적으로 임화의 「偉大한 浪漫精神」이라는 글을 거론하며, 그의 견해와 자신의 생각이 상통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현실과의 씨름에서 저서는 안된다. 현실이 살기 어렵다고 인류가 멸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럴수록 작가는 심담을 크게 가지고 영혼을 밝히고 이상을 높이 하여 걸핏하면 흙탕 속에 묻히려는 우리의

상상력(창조력)을 복돋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작가는 가슴의 불이 소망이다. 이 불로써 현실에 부치기 전에 자기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자기를 비약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현실에 끌려가고 만다.

내가 말한 낭만정신은 이 불을 말함이다. 자기를 비약시키려는 줄기찬 감상력(창조력)을 말함이다. 이 낭만정신은 생활에 대한 (혹은 예술에 대한) 의욕의 에스프리가 아니면 안된다.

작년 신년에 임화씨가 말한 위대한 낭만정신 (조선일보 소재)이라거나 최근 김남천 씨가 주장하는 고발의 정신 등도 고조하자는 점에 있어서 나의 낭만정신과 상통하는 바를 발견하였거니와 나는 이런 문제에 변민하는 자가 나뿐이 아님을 알고 다행히 여기었다.<sup>12)</sup>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유치진은 1936년까지 중반까지 아직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이었으며, 그 와중에 임화가 발표한 「偉大한 浪漫精神」이라는 글을 접하고서 자신의 창작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 방법론이 대극장연극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화의 「偉大한 浪漫精神」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쓰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유치진이 임화의 견해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치진이 카프의 맹원들과 달리 초기 1923년 동경대지진 이후 피압박민족으로서의 설움을 깨달았으며, 아나키즘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임화가 생각하고 강조하던 혁명적 낭만정신보다는 다만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의 문법적 병치 관계가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3)</sup>

유치진은 1937년 6월 10일에 『동아일보』에 浪漫性 無視한 作品은 기

11) 유치진, 「春香傳脚色에 對하여」, 『劇藝術』 5호, 1936.9(『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제9권, 양승국 편, 태동, 1991, 100면).

12) 유치진, 앞의 책, 「극단진흥책」, 24면.

13) 유치진, 『동방 유치진 전집 8권』, 서울예대출판부, 1993, 86~87면.

름 없는 機械」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한다.

柳 “鄭寅燮氏의 말을 듣건데 日後의 文學은 리얼리즘과 로맨티즘의 調和이라고 했는데 勿論 나도 이미 同感입니다. 그러나 戲曲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한層 로맨티즘이 要求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記 “그 理由는?”

柳 “比較的 小規模의 劇團가지도 府民館 같은 大舞臺를 쓰게 되는 關係로 지금까지 리얼리즘에만 충실했던 작품은 빈(空) 데가 있고 기쁨기가 없어 박박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末梢의인 리얼리즘에만 拘束되지 말고 좀더 人間의 自由스러운 感情·空想, 希望, 忿怒, 이 데올로기等を 胚胎한 로맨틱한 手法이라야 一段讀者나 觀衆을 에 필할 수가 잇을 것입니다.<sup>14)</sup>

위의 인용에 따르면, 유치진은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우선 대무대(大舞臺)에서는 기존의 리얼리즘적인 작품이 어울리지 않고 또한 로맨틱한 수법을 사용하여 관중에게 어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치진이 말하는 ‘로맨티시즘’은 ‘대극장 연극’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 표현 수법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5)</sup> 다음으로 유치진은 1937년 6월 11일 『조선일보』에 「新劇運動의 한 課題」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의 대강 요지는 대극장에 어울리는 희곡과 무대기술과 연출의 출현에는 새로운 로맨티시즘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진이 주장하는 로맨티

14) 유치진, 「浪漫性 無視한 作品은 기쁨 없는 機械」, 『東亞日報』, 1937.6.10.

15) 양승국과 박영정의 견해에 따르면, 유치진의 ‘로맨티시즘’에 관한 일련의 주장들은 대극장론과 맞물려 전개되는 것이다. 유치진은 연극이 ‘관중본위’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1936년 부민관이 설립되면서 소극장이 아니라 대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전문극단으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연극의 수립을 위해 ‘로맨티시즘’을 주장하게 된다. 즉, 유치진의 ‘로맨티시즘’은 연극 공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극장 지향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양승국, 앞의 논문, 59~72면 참조; 박영정, 앞의 책, 154~164면 참조).

시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戲曲에 있어서나 舞臺美術에 있어서나 演技에 있어서나 우선 우리는 末梢의인 리얼리즘의 弊害를 버리자. 明日의 演劇은 실로 觀察的인 리얼리즘의 先例를 받으면서 人生 生活의 無限한 希願과 理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맨티시즘’의 새로운 擡頭로서 시작될 것이 아닐가?<sup>16)</sup>

위의 인용을 통해 유치진이 말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의 내용을 짐작하게 해준다. 유치진이 말하는 리얼리즘의 성격은 ‘관찰’이라는 단어에 집약된다. 유치진이 좌담회에서 사실주의를 추구하다보면 비판에 빠지기 쉽다고 밝히고 있는 것 또한 그가 리얼리즘을 ‘관찰’의 소산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치진의 초기 희곡을 살펴보면, 현실을 ‘관찰’하는 작가의 시선 그리고 비극으로 끝맺음 되는 <소>, <토막>과 같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유치진의 리얼리즘은 ‘관찰’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토대하고 있다. 유치진은 관찰적 리얼리즘에 머물러 있는 한 암울한 현실의 비판적 세계를 그려낼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것을 극복하고 비극적 세계를 희망적 세계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창작방법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을 터이다.

1934년 4월 19일 임화는 『조선일보』에 「浪漫精神의 現實的 構造」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당시 안막에 의해 소개된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쓴 글이다. 임화는 이 글에서 ‘낭만적 정신’을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사실적인 것의 객관성에 대하여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現顯)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라”고 설명한다.

16) 유치진, 「新劇運動의 한 課題」, 『朝鮮日報』, 1937.6.11.

그리하여 나는 文學上에서 主觀的인 것으로 表現되는 모든 것을 浪漫的인 것이라 부르며, 그것이 寫實的인 것의 客觀性에對하여 主觀的인 것으로 現顯하는 意味에서 「浪漫的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이곳에서 부르는 浪漫的 정신이란 概念은 어떤 特定の時代, 特定한 文學上의 傾向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一個의 原理的인 範疇로서 稱號되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임화에게 ‘낭만적 정신’은 단순한 문예사조의 개념이 아니라 문학상의 한 원리적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임화의 ‘낭만적 정신’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미래를 지향하는 활동이기도 하며, 동시에 작가의 렌즈로 작용하는 주관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신 원리이다. 임화가 말하는 ‘낭만성’은 일차적으로 작가의 주관을 통해 객관적 대상이 다시 주관으로 현현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유치진이 생각하는 ‘낭만성’은 임화가 생각하는 ‘낭만성’과 등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임화와 유치진이 생각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진은 자신이 주장하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가 임화적 의미라고 밝혔지만 모순되게도 대상을 통해 현현되는 ‘주관’보다는 대상에 대한 ‘관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화의 견해와 어긋난다. 그럼에도 유치진은 임화가 주장하는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문법적 병치 관계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유치진이 임화의 견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임화의 낭만적 리얼리즘론이 발화된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현실인식의 정신원리로서 낭만주의

유치진의 ‘낭만주의에 입각한 리얼리즘’의 맥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1935년 이후 조선문단에 ‘낭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35년 카프의 해체와 사회주의 문학의 퇴조와 함께 정치적 발언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낭만주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진보의 가능성을 담보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936년 당시 현실에서 리얼리즘 연극이 퇴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치진의 「춘향전 각색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1936년 「春香傳脚色에 對하여」라는 글에서 유치진은 농촌극의 테마를 더 이상 찾기 어려우며, 더불어 리얼리즘 연극의 창작방법의 한계를 토로한 것은 당시의 조선문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연은 아니라 생각된다. 앞서 1936년 조선문단의 풍경에 관해 민병휘의 글을 빌려 묘사했듯 작가들은 가난과 우울한 모습으로 일거리를 찾아 종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에 따라 1935년 유치진이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를 구상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현실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1937년 12월 『조광』에 실린 「今年劇界概觀」을 살펴보면, 유치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치진은 글에서 “商業劇의 上述한바와 같은 水準低下는 그 原因이 時局問題에도 있을 것이다. 時局이 오늘과 같이 이런 때에는 觀衆은 무게가있고 內容이 있는것보다도 오히려 安價한 우습꺼리와 우름꺼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時局의 不安은 演劇뿐이아니라 藝術一般을 沈息하게한다.”<sup>18)</sup>고 말하고 있다. 유치진은 1937년 극계의 상

17) 임화, 「浪漫的 정신의 現實的 構造」, 앞의 책, 7면.

18) 유치진, 「今年劇界概觀」, 『朝光』 26호, 1937.12(『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제10권, 양승국 편, 태동, 1991, 141면).

황을 개관하면서 상업극의 수준 저하에 관해 지적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상업극의 수준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불안한 시국이라는 점이다. 유치진은 상업극의 수준 저하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이미 발화 내부에는 연극을 질식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시국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미국의 극작가 앤더슨의 <목격자>를 해설하며 ‘낭만’이라는 술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언급한 이후 유치진이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암울한 시국적 상황이 일정 부분 개입한다는 점에서, 유치진이 주장하는 로맨티시즘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대응 방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 할 만하다.

임화는 『동아일보』에 1937년 12월 12일 발표한 「彷徨하는時代精神」이라는 글에서 “사실 이른바 좌우 어떤 익을 물론하고 최근 조선문학의 추향이 불안이라든가 혼돈이라든가 무방향이라든가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있었고, 통일된 방향은 소실된 지 오래된 것이다.”라고 당시 문단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임화는 방황하는 무방향의 혼돈 현상의 저류에서 조선 문단의 정신적 유대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生活에對한 確信이 없고 明日에 對하여 偶然을 기다리는 外엔 絶望밖에 갖지않은時代, 彷徨하는時代의 人間精神의 表現이다.

이곳에 우리는 現代朝鮮文學의 雜多한 傾向이 舉皆가 暗中에 聯絡되어 있는 精神의紐帶란 것을 微微하나마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더구나 現代朝鮮靑年의 精神의性格이라할제 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事實은 슬플지나 不定할 수 없이 嚴格한 것이라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sup>19)</sup>

임화가 발견하고 있는 조선 문단의 ‘정신적 유대’는 부정할 수 없는 암

19) 임화, 「彷徨하는時代精神」, 앞의 책, 242~243면.

울한 현실의 작용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치진이 1937년 좌담에서 임화적 낭만주의를 운운하며 현실을 의심 없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리얼리즘으로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밖에 그리지 못한다는 이해는 바로 현실의 객관적 조건을 ‘기정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유치진이 언급하고 있는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작가의 ‘주관’보다는 현실의 ‘관찰’에 놓여 있는 만큼 현실은 더 이상 비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sup>20)</sup>

1930년대 후반의 ‘정신의 위기’에 처한 작가는 주체/세계 간의 관계의 모색을 통해 자기 정립을 모색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공간은 모색 자체에 선행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유치진이 주체/세계의 관계를 자기 정립하는 방식 그 자체가 일제라는 대타자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sup>21)</sup> 즉, 유치진이 ‘기정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어 ‘관찰’이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용어를 통해 그가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진의 주체는 ‘사실의 세계’<sup>22)</sup>에 방점을 찍고 ‘관찰’을 통해 세계의

20) 이승희에 의하면 1930년대 중반 이후 사실주의 희곡은 전기의 계몽적 관념적 성격에서 보수적 휴머니즘의 세계로 이행한다. 그리고 보수적 휴머니즘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긍정 혹은 재생산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순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계, 이를 운명론적으로 관조하는 주체의 시선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에게 진보 혹은 저항의 개념이 투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유치진이 현실의 객관적 조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긍정 혹은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이승희, 『한국사실주의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소명출판, 2004, 316면 참조).

21) 차승기, 「‘사실의 세계’, 우연성, 협력의 윤리」,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56~58면 참조.

22) 발레리에게 있어서 ‘사실의 시대’란 단적으로 야만의 시대, 즉 인간적 역사·문화 이전에 놓인 시대이다. 이에 반해 질서의 시대란 ‘허구’의 시대를 뜻한다. 발레리의 앞서의 개념들은 야만/질서 또는 사실/허구의 뚜렷한 대립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 사용된 ‘사실의 세계’란 인간의 지성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세계의 ‘사실상태’를 의미한다(위의 책, 25~26면 참조).



변화 과정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점에서 특이하다. 오히려 유치진은 ‘관찰’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의 허약성을 지적한다. 유치진이 ‘관찰’적인 리얼리즘의 창작방법론은 현실에 대한 비관으로 밖에 흐르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 ‘관찰’의 허약성 그것이다. 유치진은 주체적 지성에 대한 확신이나 사실적 세계에 대한 탐구 혹은 투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주체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근본적인 허약성을 환기한다. 이 허약성을 초월하려는 모색이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슬로건이다.

유치진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실 세계의 부정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을 실체화 한다. ‘관찰’적인 리얼리즘의 방법론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믿음이, 리얼리즘은 ‘관찰’적이어서 비관으로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정적 현실과의 대면으로부터 미끄러진다. 이처럼 유치진의 ‘낭만주의’는 연극 공연 환경의 변화,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 중일전쟁 이후의 부정적 현실 세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작가의 내면과 관련을 맺으며 빚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5. 결론

유치진은 『동아일보』 주최의 1937년 12월 15일 좌담회에서 자신의 ‘낭만주의’를 임화적 의미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고 밝혔다. 임화에게 ‘낭만적 정신’은 단순한 문예사조의 개념이 아니라 문학상의 한 원리적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임화의 ‘낭만적 정신’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미래를 지향하는 활동이기도 하며, 동시에 작가의 렌즈로 작용하는 주관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신 원리이다.

반면 유치진의 ‘낭만주의’는 관찰적 리얼리즘에 머물러 있는 한 암울한 현실의 비관적 세계를 그려낼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것을 극복하고 비극적 세계를 희망적 세계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창작방법의 논리가 필요했을 터이다. 그것이 임화적 의미의 ‘낭만주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 말해서 임화의 글에서 발견되는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문법적 병치 관계 그 자체다. 그 결과 유치진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주장에는, 임화가 ‘낭만주의’에 관해 발화할 때 지니고 있던 1935년 당시의 발화적 맥락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유치진이 자신의 ‘낭만주의’를 임화적 의미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로 주장하고 지속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재고되어야 한다.

유치진이 주장한 리얼리즘 수정론은 카프의 해체와 사회주의 문학의 퇴조와 함께 정치적 발언을 하기 힘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작가로서의 대응 방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할만하다. 유치진은 임화의 낭만주의론에 기대어 1935년부터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자신의 구상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당시의 부정적 현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논리로 전환하는 가운데, 자신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낭만주의’라는 구상을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대극장 연극론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두용, 「創作方法의 問題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東亞日報』, 1935.8.24.
- 백 철, 「낭만인가, 사실인가? 금월 창작의 음미」, 『朝鮮日報』, 1936.3.28.
- \_\_\_\_\_, 「「레알리즘」以後에는 浪漫主義가 擡頭 作家評家の 不和는 作家의 責任」, 『東亞日報』, 1937.6.10.
- 양승국, 『韓國近代演劇 映畫批評資料集』 제9권, 양승국 편, 태동, 1991.
- \_\_\_\_\_, 『韓國近代演劇 映畫批評資料集』 제10권, 양승국 편, 태동, 1991.
- 유치진, 「浪漫性 無視한 作品은 기름 없는 機械」, 『東亞日報』, 1937.6.10.
- \_\_\_\_\_, 「新劇運動의 한 課題」, 『朝鮮日報』, 1937.6.11.
- \_\_\_\_\_, 「일허버린 詩魂을 찾아-위선 리얼리즘의 修正부터」, 『朝鮮日報』, 1938.3.9.
- \_\_\_\_\_, 『동량 유치진 전집 8권』, 서울에대출판부, 1993.
- \_\_\_\_\_, 『동량 유치진 전집 9권』, 서울에대출판부, 1993.
- 임 화, 「柳致眞論」, 『文學의 論理』, 學藝社, 1940.
- \_\_\_\_\_, 「當來할 朝鮮文學을 위한 新提唱, 偉大한 浪漫의 精神 이로서 自己를 實徹하라」, 『東亞日報』, 1936.1.1.
- 최재서, 「浪漫主義 復活인가」, 『朝鮮日報』, 1936.4.25.
- 한 효, 「創作方法의 論議 文學賞의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의 文學」, 『東亞日報』, 1936.1.1.
- 설문 「藝術」이나 「死」나, 文士心境, 『三千里』 제8권 제12호, 三千里社, 1936.12.01.
- 설문 「조선문단에 과시즘 문학이 서지겠는가」, 『三千里』 제8권 제6호, 三千里社, 1936.6.01.
- 좌담 「明日의 朝鮮文學將來할 思潮와 傾向 文壇重鎮十四氏에게 再檢討된 리얼리즘, 휴머니즘」, 『東亞日報』, 1938.1.1.

## 2. 단행본 및 논문

- 김용수, 「유치진의 사실주의극에 대한 재검토-액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9호, 한국연극학회, 1997.
- 김재석, 「유치진의 초기 희곡과 연극론의 거리」, 『어문학』 제58호, 한국어문학회, 1996.

- 문경연, 「1930년대 한일 역사극의 담론 지형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박영정, 『유치진 연극론의 사적 전개』, 태학사, 1997.
- 양승국, 「1930년대 유치진의 연극비평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집, 한국극예술학회, 1993.
- 유민영, 「저항과 순응의 궤적-유치진 전반기 희곡」, 『한국현대희곡사』, 새미, 1997.
- 이상우, 『유치진 연구』, 태학사, 1997.
- 이승희, 『한국사실주의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소명출판, 2004.
- 이정숙, 「<소>와 <당나귀>에 나타난 유치진 희곡의 변모와 의미」, 『어문학』 제102집, 한국어문학회, 2008.
- 차승기, 「사실의 세기」, 우연성, 협력의 윤리,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 문화』, 소명출판,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Romanticism of Yoo Chi-Jin

Shim Wooil

This study aimed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Romanticism as a method to cope with anxiety of the literary world in Cho-sun and negative reality by reviewing discourse related to urgent situations of the age because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being free from the view that considered the Romanticism of Yoo Chi-Jin as the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ys in big theat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play environments. The Romanticism to Limwha was a mental princip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ubjects through her own mind working as a lens of a writer. On the other hand, Yoo Chi-Jin perceived the Romanticism as logic of a writing method to overcome negative reality. Because he appreciated that realism only could portrait the pessimistic world of gloomy reality. The Romanticism of Yoo Chi-Jin did not take the context which was contained in the Romanticism of Limwha in 1935.

Key words : Yoo Chi-Jin, romanticism, the Sino-Japanese War, observational realism, fait accompli

접수일: 2011년 8월 29일

심사기간: 2011년 9월 8일~10월 5일

게재결정: 2011년 10월 5일